

나주시, 청년 전력 인재 키우기 나선다

폴리텍대학 전력기술센터 유치 위해 목포캠퍼스와 업무협약 체결 맞춤형 기술교육·일자리 창출...에너지밸리 조성 시너지 효과 기대

나주시가 청년 전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목포 캠퍼스 전력기술센터'를 빛가람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본사 이전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계기로 입주기업 지원에 필수인 '전력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폴

리텍대학 전력기술센터'를 나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는 최근 국내 대표 기술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기술센터는 전력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대학 재직자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시는 에너지밸리 연관기업에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센터를 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취업을 앞둔 지역 청년과 시민들에게 기업 맞춤형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도 앞선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난에 고전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을 뒷받침 할 전문 자격증 취득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 센터는 나주시역 기능인력 육성·교육 기관인 나주공고를 비롯, 동산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예정인 한전공대 등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에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센터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유치할 예정이다. 규모는 부지 1만 5688㎡(약 4800평), 건축 연면적 7000

㎡, 6층 건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과는 한전과 연계된 '전기과'를 비롯, 발전설비과(한전KPS 연계), 전력 ICT과(한전KDN연계)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생 이모작에 도전하는 신중년을 위한 전문기술 과정과 300여명 규모의 재직자 향상교육 과정도 갖출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 전력기술센터를 반드시 나주로 유치 하겠다"며 "센터 유치가 성공할 경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 꼭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배워서 남주기

나주시 '행복한 코칭 맘 스쿨' 수료생 아동 대상 재능 기부

나주시 평생학습 '행복한 코칭 맘 스쿨'에 수료생들이 배운 재능을 다시 돌려주는 '배워서 남주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는 '행복한 코칭 맘 스쿨'을 이수한 수료생 20명이 오는 2월말까지 지역 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코칭 맘 스쿨은 지난해 시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자기주도 학습 코칭지도사 2급을 취득해 교육적 역량

을 갖추고 재능기부 동아리를 만들었다. 지난 17일 나주시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열린 첫 수업에는 동아리 회원 6명이 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흥미유형 찾기, 버킷리스트 쓰기, 자신감 리포트 작성 등을 진행했다. 재능기부 동아리 김혜신 대표는 "코칭 맘 스쿨을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제 지도를 해보면서 학부모들의 자기 성장은 물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행복한 코칭 맘 스쿨' 재능기부 동아리회원들이 지난 17일 나주시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흥미유형 찾기, 버킷리스트 쓰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소상공인 적극 지원합니다"

전남신보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

나주시는 최근 소상공인회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지역 11개 상인회 대표와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시지부, 이·미용협회, 숙박연합회 등 소상공인 대표 및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앙부처의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종합대책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이 소개됐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주민소득 금고사업'과 '무담보 저신용자 특별보증을 위한 금융 및 신용 지원 사업', 50억원 규모 '나주시사랑상품권 판매 확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 '5일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석철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에 힘써준 나주시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관영 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과 추진



나주시는 최근 소상공인회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과 함께 현장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나주시 제공>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 평가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혁신도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재조정키로

불편 민원 늘자 추가 개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주 52시간) 단축으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변경한(1월 1일 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일부 노선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26일부터 현재 2개 노선으로 운행 중인 혁신도시(빛가람동) 내 셔틀버스를 1개 노선으로 정비한다. 대신 셔틀버스양방향 노선을 3대에서 4대로 늘려 배차 간격을 줄였다. 혁신도시에서 동산대를 왕복하는 700번 버스는 운행시간 단축 등을 위해 그린로와 한빛우정로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 버스는 9대에서 7대로 줄이는 대신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였다. 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운수업체 2곳의 인력난과 차량 감축 등 현실을 반영한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1일자로 3개 노선으로 나눠 영산포에서 전남대를 오가는 999번 버스를 1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703번(혁신도시~영산포) 노선을 폐지하고 1160번으로 대체하는 등 노선 개편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주민 중심으로 불편 민원이 늘어나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노선 개편을 하기로 했다. 노선 추가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승강장, 아파트, 경로당 등에 전단을 배포·부착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편은 오는 7월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시민 의견수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나주시역 시내버스 업체는 2곳으로 300여명의 운전기사가 하루 평균 15~16시간 일한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현행 노선 및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서는 1일 2교대 근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90여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지역 총원 필요 인력만 1060명(업체추산)에 달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가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노선과 운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박물관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나주시 금천면 소재 '나주박물관' (사진)이 배를 소재로 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박물관은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26일 첫 프로그램은 동절기 건강식품인 나주 배의 효능을 알아보고, 직접 배를 만들어보는 '배돌이와 맛있는 겨울 나기', '궁중음식 배숙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를 꿀물에 달인 배숙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겨울내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셨던 전통음료로, 갖감대신 배를 넣었다고 '배수정과'라고도 불린다. 참여 희망자는 7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물관 전화(061-331-5038)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나주박물관만의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해보시길 바란다"며 "올 한 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나주배의 역사와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은 배돌이 에코백을 꾸미는 '알송달송 나주배이야기', 불철 만발한 배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액자로 꾸며보는 '우리가족 배꽃 사진관' 등 연중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일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시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박물관(061-331-5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시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형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전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